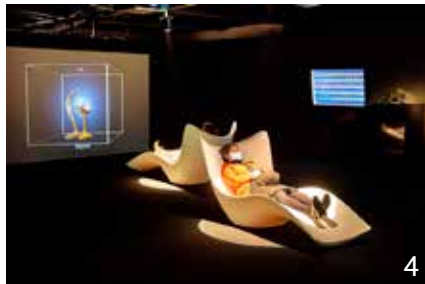


“올해는 통영 여행가는 해” 통영애(愛) 온(ON)나’ 캠페인



1 지난해 열린 통영문화재 야행 2 통영문화재 야행 공연 3, 4 통영국제트리엔날레 전시관



통영시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지난해 11월 대한민국 축제 혁신 도시로 선정됐다.

이에 올해 사계절 축제가 열리는 도시, 자연을 즐기고 힐링할 수 있는 도시로서 통영시를 알리고자 '2022 통영 여행가는 해 - 통영애(愛) 온(ON)나'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우선 지난 3월 18일 개막해 5월 8일까지 열리는 제1회 통영국제트리엔날레가 지역을 대표하는 행사로 자리 잡았다. 3월 25일부터 4월 3일까지 열린 통영국제음악제도 많은 관광객의 발길을 이끌었다.

오는 6월 3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문화재 야행, 8월 5일부터 14일까지 예정된 한산대첩축제 등 문화·예술 축제와 각종 국제체육대회가 통영에서 끊임없이 이어진다.

통영시는 '2022 통영 여행가는 해'를 알리기 위한 슬로건을 '통영애(愛) 온(ON)나'로 정했다. '통영에 와라'는 말을 경상도 사투리 '온나'를 사용해 4계절 축제가 준비된 '통영에 놀러와'라는 뜻에 지역 특색을 살리고 친근감을 표현했다.

'통영애(愛) 온(ON)나'는 '통영 지역에 사랑의 스위치가 켜진 나라는 의미도 함께 담았다. MZ세대들이 소셜미디어에서 자신의 관심을 하트를 눌러 표현하듯 통영 지역에 MZ세대의 관심과 사랑이 모이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시켰다.

통영시는 연이은 행사 기획과 함께 통영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위한 특별 이벤트와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내실을 다지는 데에도 역량을 집중한다.

또 관광 콘텐츠와 관광 상품 발굴은 물론, 관광 산업 기반 강화를 위한 관련 산업 종사자 교육도 강화한다. 관광 정책 토론회를 열고, 빠르게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를 반영하고자 소셜미디어 대학생 모니터링단과 국제트리엔날레 대학생 체험단 등도 조직해 활용한다.

통영시는 경남대학교 관광학과와 지역 연계 교과목 공동 운영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해 MZ 세대와의 교감과 접점을 늘리고 시의 주요 관광자원 홍보와 정책에 새로운 발전 방안을 모색한다. ●



자연 on

축제 on

힐링 on



4 계 절 사 랑 의 스 위 치 가 켜 지 는 도 시

2022 통영 여행가는 해

통영애 온나
통영 on 나